

-09.08.20 목 새벽 06:20 (새벽예배 후 기도 중 갑자기 몸을 꿈쩍 할 수 없이 소름이 돋고 식은 땀이 나고 몸이 벌벌 떨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주님만 하나님만 찾게 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서 더 두렵고 무서워 미칠 것 같았던 상황. 사탄이라는 느낌은 아니었음. 한참 동안을 그런 다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함.)

< 환난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

사랑하는 나의 심정아.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닥쳐올 두려움을 느꼈느냐. 내가 너에게 느끼게 하였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지. 모두에게 전해 주어라. 모두 깨달아야 한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도대체가 모르는 너희들의 모습이 나의 가슴을 치는구나. 네가 느끼는 그 심정이 나도 두렵구나. 하늘아버지가 이 지구촌을 멸하실까 나도 너무나 두렵구나. 이 지구촌 살리시려 나 보내시고 모든 죄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셨지만 무지한 인간들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심정아 나의 심정아. 어떻게 좀 해다오. 이들이 깨달아야 한다. 깨닫도록 해다오. 깨닫게 좀 해 다오. 내가 이 지구촌을 보고 있자니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몸서리 쳐지게 두렵구나. 이들의 죄가 너무나 나를 두렵게 만드는구나. 나의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이들의 모습이 나는 너무나 두렵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다시 이 지구촌 인간들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될까. 너희 선생을 더 험난한 길로 가게 하면 될까.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늘아버지의 진노의 손이 떨어질까 너무도 두렵고 두려워 애만 태우는구나. 내 애간장이 심정 애타게 애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나의 심정을 받아야 하고 나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어서 속히 나에게 붙어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자. 이 두렵고 두려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나는 너무나 두렵고 두렵다. 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될까 나는 너무 두렵고 두렵구나. 제발 우리 함께 하자. 너와 나 함께 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억울해 죽는다. 너희 살리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렸건만 제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다오. 제발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나의 심정 받아서 내 마음 깨달아 구원의 문에 들어오라. 나의 하늘아버지는 이 지구촌에 버리고픈 자가 하나도 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치 않고 진정으로 사랑치 않고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100% 온전치 않으면 그 나라에 못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니 제발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를 제발 보아다오. 나를 한번만 본다면 너희는 내 피눈물, 피땀한 심정, 새까맣게 탄 내 마음을 볼 것인데 도대체 한번을 안쳐다보니 내 심정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어서 속히 어서 나를 보아다오. 하늘 향해 고개 한번 들고 나의 이름 한번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너무 안타까워 못 보겠다. 너희 버릴 수 없는데 너희 버리고 못 가는데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하면 좋겠어. 나의 심정이가 느낀 환난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슴이 조여오고 몸은 최대한 낮게 작게 움츠려들고 꿈쩍도 할 수 없었으며 조금도 펴 수도 구부리기도 힘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나 예수의 이름과 나의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게 된다. 절로 그리된다. 그리될 때 그 두려움은 내가 나의 아버지가 너희 곁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떠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그때이기에 더욱이 몸서리 쳐지게 두려운 것이다. 온 몸을 땀이 휘감듯 소름이 끼쳐 전덜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떠나고 나면 알게 될 것이니 제발 나와 내 아

버지 떠나기 전에 어서 속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야 한다.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도 거할 수가 없다. 어떤 곳에도 거할 수가 없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지옥이다. 지옥. 듣기도 말하기도 끔찍한 영원한 지옥이다. 어서 깨워라. 어서 깨워. 잠자고 있는 자 어서 깨워라. 어서 깨워. 어서 깨워. 깨워야만 돼. 빨리 깨워. 때려서라도 깨워. 지금 아픈 것이 나야. 나 떠나면 그냥 죽는 거야. 영원히 끝나는 거야. 어서 깨워줘. 어서 깨워줘. 어서 깨우란 말이다. 어서 깨우란 말이다. 돌덩이로 가슴을 치고 머리를 내려쳐서라도 깨워다오. 깨워줘. 깨워줘. 깨워줘. 깨워줘. 깨워달라고. 내가 온 모든 십자가의 길이 헛되지 않고 너의 선생 계순이의 인생이 불쌍치 않게 하기위해 우리 모두 구원시켜야 한다. 이 섭리사의 절대적 사명이다. 섭리사의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의 사명이다. 모두의 사명이다. 사명하지 않는 자 타락한 자니라. 어서 이 지구촌을 두드려 깨워라. 우리 억울해서 어찌냐. 나 너무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내가 그 길에 서게 한 너희 선생 계순이도 불쌍해서 어찌냐. 몸부림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조은이도 불쌍해서 어찌냐. 섭리사 신부들 안타까워 어찌냐. 갖은 환난, 악평, 고통 다 받고 왔는데 깨어나지 못해 나와 내 아버지가 원하는 일 하지 못해 타락한 자 되면 불쌍해서 어찌냐. 제발 내 말 듣고 깨어나라. 무섭다. 난 너희들이 무섭다. 아무리 깨워도 깨워도 깨어나지 않는 너희들이 나 너무 무섭고 두렵다. 제발 깨어나라. 어서 속히 깨어나라. 어서 속히 깨어나라. 깨어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면 나는 너와 함께라면 가시밭도 자갈밭도 그 어떤 길도 행복하게 갈 수 있다. 너희와만 이 지구촌과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의 마음 알겠지. 끝까지 함께 같이 가자. 같이 해줘.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는 잠언 알지. 우리 사랑하는 섭리사 신부들아. 어서 깨어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의 앞에 나와 이 불쌍한 지구촌 살려다오. 그 불쌍한 지구촌 살리자. 함께하자. 함께 내 심정 하늘아버지 심정 받아 죽어가는 생명 살리길 원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니라. 다시 대화하자. 사랑한다. 안녕.

